

건강 칼럼

스포츠에서의 약물! 10년만에 메달을 되찾다

1.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역도 105kg이상 급에 출전하여 4위를 했던 전상균 선수가 10년이 지난 2022년 3월에 동메달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참 끈질긴 노력 끝에 약물을 찾아낸 WADA(세계반도핑기구)의 도핑방지위원들이 보인 각고의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와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전상균 선수에 앞서 3위를 차지하여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알베고프 선수(러시아)가 2017년, 2019년 2회에 걸쳐 약물검사 양성반응을 보여 선수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규정에 의해 기록삭제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르게 본인의 신체만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한 과정과 결과가 긴 어둠 끝에 찬란한 빛을 보는 것이다.

2.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역도 94kg에 출전하여 8위를 기록했던 김민재 선수는 7년이 지난 2019년 8위에서 일약 2위로 은메달을 수여받았다. 1위(카자흐스탄), 2위(러시아),



이 윤 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3위(폴도바), 4위(러시아), 6위(아제르바이잔), 7위(카자흐스탄), 11위(아르메니아) 선수들이 모두 금지약물 양성판정을 받아 5위(이란) 선수가 금메달을 8위였던 김민재 선수가 은메달을 9위였던 선수가 동메달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94kg급 선수들의 기록은 100kg급 선수들 기록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였었는데 ~ 결국 그 엄청난 기록은 약물의 힘으로 밝혀졌다. 그 당시 김민재선수도 세계정상급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보고 "재들이 약한거 아닌가?"하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의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위반선수들의 공통점은 거의 구 소련(지금의 러

시아)연방 국가 선수들이다. 3.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역도 무제한급에 출전한 정미란 선수는 4위로 경기를 마쳤는데 4년이 지난 2016년 3위(아르메니아)선수가 약물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져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해서 노메달로 귀국했던 2012년 런던올림픽 역도는 결과적으로 은1, 동2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만시지탄이지만 명예를 되찾고 금의환향하게 되었다. 4.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역도 48kg급 임정화 선수도 4위로 경기를 마쳤는데 9년이 지난 2017년 1위(중국), 2위(터키) 선수가 약물검사 양성으로 실격되어 은메달을 수여받았다. WADA(세계반도핑기구)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입상선수들의 검

체시료는 10년을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약물검사를 한다. 경기 당시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약물이란도 계속해서 검사기술과 시약, 지식의 발전하면서 반복적인 검사로 금지약물을 찾아내고 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피겨 발리에바(러시아)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2006년생으로 만16세 미만이던 징계는 하지 않았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소트니코바(러시아)도 강한 의심의 받고 있다. 은메달은 김연아 선수.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야하는 것이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세상사가 대충 그렇듯이 선수, 지도자도 인간인 이상 처절한 승부의 세계에서 100%모두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일 수도 있다. 선수와 약물은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도 보듯이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어둠은 밝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포츠세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자재언

어린이 교통사고 모두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철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에서 각종 체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방법을 꾸준히 교육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한다. 특히, 스쿨존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곳이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했다.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경찰서에서는 교통 지도 및 단속을 하면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규위반이 명확할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도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 절대적 불법주정차 등 금지구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아무리 주·정차공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고은새 남원경찰서교통관리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크라이나와 모두에 행복을'



'세계 행복의 날'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 문양의 조명과 스마일 로고가 비치고 있다. 매년 3월 20일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복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다.

사설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디지털 소외 계층이 많다. 디지털 지수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내 어느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나눔센터를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의 스마트나눔센터는 시민 디지털 역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특정한 분야에 관해 보조 또는 지도를 제공하는 사람 즉 시민 튜터(tutor)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곳은 디지털 소외 계층 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튜터로 육성된 시민이 다른 시민을 교육하고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함께 성장해 가는 공간인 셈이다. 심층 교육과 현장 실습 등 디지털 교육을 수료한 시민 튜터가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디지털 취약 계층 중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55세 이상)을 우선 신청 받아 스마트폰 활용법 등 스마트 역량 강화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금융 전담 교육과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고령 고객은 물론 농어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1:1 멘토링 및 현장 교육도 필요하다. 디지털금융 교육 전문가가 ▲디지털 관련 용어 이해 ▲「시니어뱅크」 사용법 ▲보이스피싱 사례와 피해 예방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현장 교육으로 고객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구의 디지털금융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려야 할 때이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농어민과 고령층의 쉽고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활을 도와야 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돕는 일은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바로미터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매사냥의 고장 진안

전북 진안군의 매사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 27일 매사냥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진안군 백운면에서 국내 매사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박정오 응사와 이수자 전원이 시연을 진행했다. 시연회에는 참매의 사냥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국내 7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대거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하늘을 가르며 매가 쫓을 잡는 모습은 참석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진안군 백운면 일대는 쫓아 서식하기 적합한 교원지대로 예부터 겨울철 쫓을 잡는 매사냥이 성행했다. 백운면 매사냥은 보통 12월에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진다. 진안군과 박정오 응사는 2007년부터 매년 12월 매사냥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안 지역 매사냥은 산간의 전통 수렵이자 공동체 민속으로서 높은

속연도가 요구된다. 수렵 방식에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박정오 응사는 국내 매사냥의 대표적 기능 보유자이다. 진안에는 성수, 동향, 백운, 미령, 부귀, 안천, 용담, 진안읍, 주천 등 진안 10곳에 매사냥 관련 지명이 있다. 진안군 지역의 매와 관련한 지명은 36곳으로 파악됐다. 진안군 각 면의 바위, 봉, 재, 산, 골, 등, 냇방 등에 나타난 매 관련 지명은 대개 그 형국이 매처럼 생겼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매가 마을 근처에 살았던 곳, 매가 잘 내리는 곳, 매사냥을 하던 곳, 매를 받아 오던 곳 등이 지명으로 되어 있다. 매사냥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형 유산이다. 매사냥 기능 보유자는 여전히 시·도 무형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다. 매사냥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